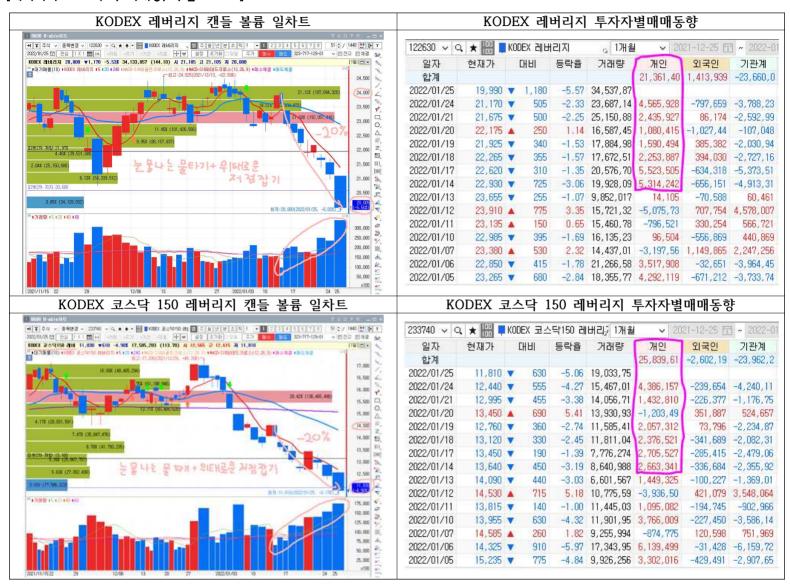
Compliance Notices 20220124오후

본 매체에 게재되는 모든 자료는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글쓴이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이러한 자료들은 모두 과거의 데이터를 기초로 한 투자 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 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## 심심한 Insight: 국장 지수 레버리지 ETF 눈물나는 물타기 + 위태로운 저점잡기

[레버리지 ETF 차트, 거래량, 수급 Check]



## [리포트 다시 보기 1: 저점 매수 전 확인해야 할 두 가지(출처: 220125, 김일혁 Strategist, Global Insights, KB증권 리서치센터)]

● 미국 3대 주가지수 모두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중, 하락에 붙는 가속도를 봤을 때 투매는 한창 진행 중, 따라서 하락이 하락을 부루는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전망, 연준에서 시작된 유동성 위축은 시작 단계인데 시장은 추가 긴축 우려를 가격에 덜 반영 중, 비록 낙폭과대 인식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겠지만, ① FOMC에서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를 확인하고, ②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1월 고용상황 보고서에서 임금 상승 압력을 확인하고 움직여도 늦지 않을 것

[리포트 다시 보기 2: 수출 Good Start, 무역수지 Bad Start(출처: 220112, 박상현, 류진이 Economist, 오늘의 차트(Chart), 하이투자증권)]

- 국내 수출이 22년 좋은 스타트를 함. **1월 1~10일 수출은 전년동기 24.4% 증가**함. 17년(1월 1~10일) 37.6% 이후 가장 높은 수출증 가율임. 물론 기저효과 영향(21년 1월 1~10일: -15.4%)도 일부 작용했지만 조업일수를 감안한 **일 평균 수출증가율이 14.8%였다는 점에서 양호한 수출 증가율**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
- 반면, 1월 1~10일까지 **무역수지 적자 규모**는 49.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**약 42억 달러 폭증**했고 지난해 12월 1~10일 무역수지 적자폭 24.8억 달러는 물론 지난해 8월 1~10일 46.8억 달러를 상회하는 적자 규모임. 수출 호조 속에 1~10일 수입이 전년 동기 57.1% 폭증한데 기인함. 1~10일 중 주요 품목별 **수입증가율을 보면 가스 393%, 원유 80% 및 석탄 395% 그리고 석유제품** 150% 등 에너지 관련 수입이 폭증함
- 결국, 높은 수입 증가율을 단기적으로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**수출 경기 모멘텀 유지 혹은 모멘텀 추가 강화가 더욱 중요**해짐